

경제학적 기업관의 변천과 성경적 기업관

김승욱

(중앙대학교 / 경제학)

논문 초록

기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를 위해, 경제학에서 연구되는 기업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주류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기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했다. 여기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은 이론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기업이해의 발전은 성경이 강조하는 윤리, 즉 정직, 상호신뢰, 성실, 사랑, 봉사, 헌신 등의 윤리가 기업의 효율성과 상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섬김이며, 기업이 계약공동체가 아니라 언약공동체라고 하는 성경적 기업관이 옳다는 주장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땅의 일터를 통해서도 만물을 회복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섬김의 원리를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기업, 기업관, 기업의 의의,
신제도주의 경제학, 성경적 기업관

- I. 서론
- II. 주류경제학의 기업이론과 그 문제점
- III.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기업
- VI.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기업의 의의
- V. 성경적 기업관
- VI. 결론

I. 서론

최근에 경제학은 신제도주의 학파(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등장으로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더글러스 노스(North, 1990)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취가 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이나 자본은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지만, 제도는 그 나라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가 국내에서 잘 작동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창출 여부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결정한다고 하는 노스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기독교경제학자들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Brock, 2002).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제도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인간이 세운 제도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검토해보는 작업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직접 세운 제도로 가정과 교회가 있다. 이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제도이면서, 다른 제도의 표상이 된다. 그 밖의 제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직접적으로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가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로 인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 법과 질서,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기구로 인간사회에 국가를 허락하셨다.¹⁾

그렇다면 기업은 누가 세웠는가? 천국에도 기업이 있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기업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등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생업에 필요한 쓸 것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되는 직장을 선택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좀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기업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검토하여 기업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또는 공급자) 및 고용의 창출자, 그리고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수요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세 축으로 가계, 기업, 정부를 상정할 정도로 기업이란 경제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경제 문제는 청지기직이나 돈의 위험성(황호찬, 2001, 1996), 빈부의 문제(Edul, 1950), 소비와 절제의 문제(이만기, 1992; 김세열, 1990), 토지나 부동산 투기(전장수·한동근, 1999), 노동문제(엄요섭, 1987),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Nash, 1986; Hay, 1995) 등으로써 기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업 경영원리를 다룬 저술들이 있지만 이럴 때도 기업의 존립 목적과 의의에 대

1)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세운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주시기를 꺼렸던 것을 보면 왕정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용인은 하셨지만 인간이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논의가 별로 되지 않았다(Channing, 1990). 최근에 와서야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Sirica, 2000).

기업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인 집단은 존재했지만 고대 사회나 중세 시대에도 현대적 의미의 기업은 출현하지 않았다.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는 오늘날과 유사한 기업의 뿌리로 중상주의 시대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본다. 처음에는 상인과 선장 및 선주 등이 모인 일회적 성격의 파트너십이 점차 발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고용자가 생기고 피고용자가 발생했다. 그 후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생산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면서 고용과 피고용을 특징으로 하며, 지속성을 갖는 기업조직이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기업의 긍정적 역할보다는, 기업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에 널리 퍼졌다. 따라서 기업도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전 시대의 탐욕적인 고리대금업자나 상인의 이미지가 기업 경영자나 자본가에게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당시 열악한 노동조건이 마르크스 등에 의해서 비판되면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고조되었다.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마아치르 전 수상은 기업가야말로 애국자라고 표현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 불교와 유교 등 전통 사상도 역시 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했고, 과거 고도성장기 군사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정경유착이라는 불신을 더해 주었다. 우리 사회는 기업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들 사이에도 이러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이자를 금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윤추구행위를 여우가 썩은 고기를 탐하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칼뱅이 성경의 이자금지가 소비대부에 국한된 것이며, 산업대부는 금하지 않는다고 하는 혁명적 해석을 하고, 루터가 소명의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기업 활동도 새로운 조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막스 베버(Max Weber)가 목격한바와 같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더욱 부르주아들이 많았고, 경제성장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의미의 기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평가도 일반적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부정적이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어주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Preston, 1991: 145).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존재 의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주류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기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기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약한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기업의 존재 의의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밝히고, 성경적 기업관과 비교를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경제학적 기업관의 변천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보이고자 한다.

II. 주류경제학의 기업이론과 그 문제점

주류경제학에서는 이기심에 기초한 개인의 경제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조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사익의 전체가 되는 이기심(self-interest)의 추구는 자리심(自利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개념은 이기적(selfish)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남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자기의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의미의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의 인간관으로 상정하는 경제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인간을 상정한다. 이러한 인간관을 기초로 한 주류경제이론의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자.

1. 주류 경제이론에서 기업의 역할

주류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산의 주체로 다룬다. 주류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기업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경제주체 중에서 가계와 정부는 소비의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다. 또 개별 경제주체들의 모임이 시장이라고 간주한다.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원리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량이 결정되고, 이것을 모두 합한 것이 시장공급량이라고 간주한다.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의 힘에 의해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한다.²⁾

2) 수요의 주체는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가계와 정부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부소비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가격이라는 신호에 따라 수요량을 늘리든지 줄이는 수요의 주체로는 가계만 고려한다.

이러한 프레임 하에서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극대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생산요소를 구입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할 것인가를 분석한다.³⁾ 이렇게 주류경제학에서는 기업을 단순화 시켜서 이윤극대화 또는 생산비 극소화 및 생산량 극대화의 주체로써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주어지면, 자본과 노동을 어느 정도로 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주류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예측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⁴⁾

케인즈 이후에 발전된 거시경제학에서도 기업을 다루는 방식이 큰 변화는 없다. 거시경제학의 총수요·총공급모델로 설명을 하면 경제를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을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비수요, 기업의 투자수요, 정부의 정부수요, 그리고 해외수요로 구분한다. 여기서 기업의 역할이란 투자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한다고 본다.⁵⁾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의 총공급 함수가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자본과 노동을 이 총생산함수에 대입하면 그 사회의 총생산 즉 GDP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
- 3) 여기서 더 나아가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놓여있지 않으면 다른 모습의 공급곡선이 도출되므로 시장론을 다룬다. 시장을 가장 극단적인 두 형태, 즉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시장 환경 하에서 이윤극대화 원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 4) 이 밖에 기업과 관련이 있는 미시경제학의 분야에는 노동경제학 분야가 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기업에서 임금이 어떠한 원리로 결정되는가, 그리고 시장의 형태에 따른 임금 결정 원리 및 노사관계 등을 다룬다.
- 5) 이러한 거시경제학의 체계에서 기업은 투자주체로서 다루어진다. 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소비나 정부소비에 비해서 작지만 변동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경기변동에서 기업의 투자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따라서 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가 주요 관심사이다. 고전학과 학자들은 이자율이 투자의 결정요인이라고 본 반면에, 케인즈학과 경제학자들은 투자는 이자율보다는 기업가의 이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기술수준이나 제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불변이라는 전제 하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서 총생산량 즉 총공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투입량은 노동시장에서 자본투입량은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자로서,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한다.⁶⁾

2. 주류경제학에서의 기업 이해의 문제점

이와 같이 주류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외생적인 기술을 전제로 주어진 가격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은 생산함수(firm as production function)로 간주한다. 일찍이 슈페터(Joseph A. Schumpeter,)가 기업가의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오늘날 경제학은 기업 활동의 여러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 기업의 행동 원리 및 시장의 전체적인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신제도주의학과 학자들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시장에 대한 이론은 구축했으나, 기업에 대한 이론은 구축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류경제학에서 기업의 본질을 인간들이 모인 조직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생산함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주류경제학에서 기업을 이렇게 상정한 것은 주요 관심사가 가격의 역할

6) 이 밖에 경제학에서 기업을 다루는 분야로 산업조직론 분야가 있다. 기업집중 문제, 중소기업 보호, 기업의 지배구조 등도 다룬다. 그리고 국제경제학 분야 중에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다루는 국제금융, 외국인 투자를 다루는 해외 직접투자부문, 그리고 해외 기업 유치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도 기업과 관련된 분야이다.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재정학 등도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세정책은 법인세를 통해서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도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과 자원배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으로 발전한 18세기의 완전경쟁 시장이론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아담 스미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중상주의 시대로써, 이 시대에는 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귀족들이 경제를 통제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는 엘리트주의가 팽배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력한 정부가 없더라도 경제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완전경쟁 모형은 이러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완전경쟁 모형은 경제주체인 개인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시장가격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의 주된 관심이 처음부터 시장가격기구가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역할과 자원배분을 통해 어떻게 경제를 조정하는가에 있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가격기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 인간의 인위적인 조정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조화롭게 시장을 조정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경쟁모형은 기업(생산의 주체)을 소비자(소비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주체로 생각하였다.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원리에서 수요법칙이 유도되듯이,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극대화 행동원리에서 공급법칙이 유도된다. 그리하여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시장가격은 다시 기업과 가계를 통해서 경제의 자원배분을 조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단지 시장가격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가격이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비교적 덜 중요한 다른 요소들은 분석의 편의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공급의 주체로써 이윤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가정한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성립되는 법칙을 유

도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들은 일정불변하다고 가정을 하고, 동일한 가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사결정이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즉 기업은 오직 완벽한 컴퓨터처럼 실수 없이 그리고 아무런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서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나이트 (*Frank Knight, 193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기업 내에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설명하지 못하며 단지 구입한 자원을 이용하여 주어진 기술수준으로 생산량을 얻는 기계적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의 기업이론은 생산과정, 즉 인사관리, 자금관리, 경영 등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즉 동원된 생산요소를 기업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연적인 기업 조직의 명령(command)이나 권위(authority)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⁷⁾

둘째로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에게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행위도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1992; *Smith, 1759*). 즉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는 하지만 타인의

7) 완전경쟁 모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기술조건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가격뿐이다. 모든 매개변수들이 개인이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이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 모형은 경제에서 가격이 어떻게 자원배분을 결정하는가를 이해하고, 모형에서 채택한 외생변수의 변화가 가격과 자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데는 좋은 모형이다. 즉 이 모형을 통해 조세나 관세의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가격기구에 의하지 않고 명령이나 권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기업의 특징은 교환을 통하여 획득한 자원을 가격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내의 명령에 의해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동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동감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따라서 공적 질서와 개인의 이익추구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Smith, 1776: 22)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주인·양조장주인·빵집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거지 이외에는 아무도 동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분업의 발전으로 상업이 발전되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상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되면, 기업가의 이윤추구 행위 역시 조화를 이루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고 기업을 생산의 주체로만 간주한다.

아담 스미스는 기업이 단순히 생산함수가 아니고 인간들의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제도라고 인식하였으나,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의 사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쳐, 그 후에 리카도(David Ricardo)와 밀(John S. Mill) 등의 고전학과 경제학자들과 신고전학과 학자들로 경제학이 계승되면서 경제학이 물리학과 같이 일반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점차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주체로 간주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노동과 자본을 내생변수로 하는 생산함수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로 주류경제학에서 기업을 생산함수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교환이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갈등에 대한 조정과 동

기부여(incentive) 문제를 가격기구(시장, invisible hands)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거래에 필요한 계약을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주류경제학의 두 가지 가정 때문에 가능하다. 첫 번째 가정은 계약에 필요한 가격이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등의 정보를 충분히 얻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보가 완전한 완비시장(complete market)을 가정한다. 두 번째 가정은 인간이 무한한 합리성(perfect rationality)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는 순식간에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기업에서는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해서 항상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다른 요소는 무시될 수 있고, 단지 기업의 생산 활동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주어진 기술 하에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요소구입에 필요한 정보도 아무런 비용 없이 제공되므로 이윤극대화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비용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 활동은 즉각적이고 일회적인 거래에 기초한 현물시장(現物市場spot market)을 통한 계약들 만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고, 따라서 영속적인 거래를 위해 필요한 조직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이란 제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로 인해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기업이란 결국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이상의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그 내부의 경영 조직은 별 의미가 없다. 보울딩(Boulding)이 지적했듯이, 신고전파적 세계에서 기업이란 “그림자와 같은 존재”(shadowy figure)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고전파의 완전경쟁시장 이론체계 속에서는 기업이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현실에서는 기업이 핵심적인 존재로 기능을 하는데, 그 이유를 주류경제학의 기업이론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완전경쟁 모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가격체계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모형이지만, 이 모형은 경영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시사하는 바가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고안해 내며, 자원을 통제하고 피고용자를 관리하는 경영의 진정한 업무는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기업이 하나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소홀히 하여 기업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왜 어떤 기업 조직이 다른 기업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완전경쟁시장 모형의 가정을 완화해서 현실에 부합되는 가정에 기초해야 한다. 즉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며, 경영이라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전제 하에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즉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합리적이며,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는 모든 기업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한다고 전제함으로 인해, 주류경제학의 기업이론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III.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기업

주류경제학에서 기업을 낙관적으로 인식한 것과 반대로 마르크스주의자

들은 기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먼저 마르크스의 기업 인식을 살펴보자.

1. 마르크스에 의한 문제 제기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으며, 『자본론』에는 그러한 사례들을 수없이 소개하고 있다. 마르크스(Marx, 1867: 제권 308)는 노탕업주의 치안판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전략)* 9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이 새벽 2, 3,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겨우 입에 풀칠만이라도 하기 위해 밤 10, 11, 12시까지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팔다리는 말라비틀어지고 신체는 왜소해지며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히 목석처럼 무감각한상태로 굳어져버려 보지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후략)”

이러한 마르크스의 지적은 과장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고용형태는 유아노동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산업혁명 초기에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노동력은 대부분 부녀자들과 유아들이었다 (김종현, 1988: 361). 그 이유는 성인 남자들은 대개 기술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공장노동에 대한 반감이 많았다. 그리고 작업이 단순했으며, 유아와 부녀자들은 유순하고 임금이 싸기 때문에 기업가도 유아와 부녀자들을 선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16시간씩 노동했으며, 주야 교대 노동했다. 실수하면 태형이나 벌금이 떨어졌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은커녕 일자리를 잃었다. 초기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오늘의 기준에서 볼 때 한 마디로 비참했다. 유아 노동의 경우 심지어는 만 4세부터 일을 시켰으며,

노동시간이 대부분 새벽부터 황혼까지(dawn to dusk)였다. 1832년 의회의 한 위원회가 노동실태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비벨 때는 새벽 세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19시간이었으며, 이 중에 휴식시간은 아침 식사시간 15분, 저녁 식사시간 30분, 술 마시는 시간 15분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일 뿐만 아니라 공장청소도 해야 하는데, 공장청소는 아침 식사시간이나 술 마시는 시간에 마쳐야 했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슬럼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1839년 “the Wynds”라고 불려진 글라스고우(Glasgow)의 노동자 숙소에 관한 정부의 지방행정관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의 공장에 노동자들이 15,000에서 30,000명 정도 거주하는데, 이들의 주거 상황을 보면, 한 방에 15-20명의 남녀가 섞여 있는데, 옷을 입은 자도 있고, 벌거벗은 자도 있었다. 가구라고는 거의 없고, 벽난로가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였다고 한다. 도둑질과 매춘이 이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맨체스터에서 평균수명은 17년이었는데, 이는 유아 사망률이 50%를 넘는다는 뜻이다(Heilbroner, 1998: 80).

공장이 보편화되고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전하던 산업혁명 당시에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악덕 기업주들의 모습과 동일시하였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결국 기업이란 기업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공산권은 물론이고, 아직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제3세계에도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는데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8) 마르크스도 기업가는 자신도 하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드시 악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단지 자본주의의 특징인 경쟁으로 인해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착취자로 인식한다.

적 대기업을 통한 성장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정경유착을 통해 특별로 성장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기업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자가 되면 된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가가 기업을 지배하게 된 것은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먼저 기업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도 있다(이근, 2002).⁹⁾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가에 의한 착취가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기업을 소유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이 현실화 된 것이 유고슬라비아의 ‘근로자 자율 경영 기업 (worker’s self-managed enterprises)’이다.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남은 이윤은 자본가가 차지하는 자본주의적인 기업과 반대로,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고, 이윤을 노동자들이 나누어갔는 모델이다. 유고슬라비아는 195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5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가 경영하는 기업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임금의 의미가 사라졌고 따라서 착취의 문제도 사라졌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다른 나라로 파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업은 목표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대신 근로자 1인당 이윤 극대화로 변화되어 근로자들이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새로운 식구와의 인화적 요인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용을 늘리기를 꺼려하

9) 게임 이론가들은 게임이론을 통해서 역사에서 기업의 주인이 노동자들이 되지 못하고 자본가들이 된 것은 효율성과 관계없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다.

였다. 그리고 임금이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해 원가계산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기를 꺼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가 위축되었다. 더욱이 사적(私的) 유인에 의한 투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신규투자가 잘 일어나지 않아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산이 위축되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기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업의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기업 모델은 역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김영봉, 1993: 446-56).

그런데 마르크스는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마르크스(Karl Marx, 1867, 제1권 13-15장)는 자본주의로 인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풍요로운 사회의 기초 생활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았으며, 그 원동력을 기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 기업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Marx, 1867, 제1권 제7장)는 기업의 조직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체하는 사회주의의 싹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상품생산 뿐만 아니라, 복잡한 분업을 조직해 낼 수 있는 근대적 기업 제도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근대적 자본주의 기업을 “시장이라는 무정부 상태(anarchy)속에 존재하는 질서(order)의 섬”이라고 부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이색적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주체 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증대하면서, 시장을 통한 사후적 조정(market coordination - invisible hand)보다는 기업 내부의 사전적인 위계적 조정(hierarchical coordination - visible hand)이 점차 더 효율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시장을 통한 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 경제가 하나의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중앙 계획 경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즉 기업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합리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씨앗을 보았다(장하준 1996: 196).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은 후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돕(Maurice Dobb)도 역시 분업에서 기업의 존재의미를 찾았다. 돕에 따르면 분업으로 인해서 생산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분업에 따라 생산과정이 분화되면 이를 통합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하는 힘이 없으면 분업으로 인한 생산관계의 분화는 혼란에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2. 마르크스 기업관 비판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대해서, 코즈(Ronald Coase)는 기업이 어떤 경우에는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코즈는 그 이유, 즉 시장이란 내버려두면 혼란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 이후의 주류경제학이 밝힌 바와 같이 시장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르크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제도를 통한 사전적 조정(ex ante coordination)이 시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조정(ex post coordination)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라면,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어 결국 시장제도가 완전히 소멸하고 전 경제가 하나의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수립되지 않을까 하며 반문한다.

코즈는 기업이 시장보다 더 효율적일 경우가 있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독립된 경제주체간의 시장 거래에는 거래비용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 내부의 활동들을 상호 조정하는 데에 “조직비

용”(costs of organizing)“이 소요된다. 이때 조직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적게 소요될 때는 기업이 더 효과적이고, 기업이 비대해져서 조직비용이 거래비용보다 더 들면 기업이 시장보다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코즈는 조직비용은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점에 이르면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경제성이 없고 외주(outsourcing)를 주는 것(즉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시점이 오며, 이 점에서 기업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코즈는 이와 같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시장경제는 혼란을 가져오며, 기업을 이 혼란을 부분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기구라고 본 마르크스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주류경제학이 비록 기업에 대한 이론은 정립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의 혼란은 가격기구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즉 분업이 반드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기업과 시장을 서로 대비되는 실체로 분석한 것과 기업을 생산함수가 아니라 인간 조직체로 그 본질을 파악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코즈의 지적과 같이 마르크스의 기업이론은 시장이 반드시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하다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VI.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기업의 의의

1. 구제도학파의 기업에 대한 비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제도주의학파로 분류되는 베블렌(Veblen)이나 갈브레이스(J. M

Gallbraith) 등은 주류경제학이 시장 이외에는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류경제학을 부정하고, 제도를 강조했다. 그런데 갈브레이스는 특히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주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무엘슨(Paul A. Samuelson)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자본주의는 소비자 주권이 아니라 생산자 주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법인 기업은 가격을 지배하고, 그다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이에 종속시킨다. 그리고 법인기업은, 소비자의 취향을 스스로의 생산물에 부합되게 형성한다. 누구나가 이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행하는 광고는 우리들의 시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귀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 버린다 (Gallbraith, 1977: 358).”

이렇게 갈브레이스는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소비자를 광고를 통해서 현혹시켜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병원, 교량 등 사람들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낭비한다고 기업을 비판했다. 다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기업을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한 반면에, 갈브레이스는 기업이 소비자를 현혹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기업을 비판했다.

갈브레이스 등 구제도학과 학자들은 주류경제학과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서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문제제기는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후에 주류경제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비판에서 머물고 대안이 될 만한 이론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신제도주의 학파의 기업이론

구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발전시켜, 새로운 학파로 계승 발전시킨 일련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고 부른다. 신제도주의 경제학파로 불리는 이들은 기업에 대해서도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다. 이들은 주류경제학과 같이 기업을 비현실적으로 단지 생산 함수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구제도학과처럼 비판에서 머물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류경제학에 비견되는 이론으로 발전시켜 기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들이 발전시킨 신제도학파의 기업관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인 시장과 대비하여, ‘보이는 손(visible hands)’으로써 기업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즉 기업을 인간에 의한 조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은 나이트, 코즈, 윌리엄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나이트의 불확실성이론

일찍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주류경제학과 매우 다르게 파악한 학자는 미국 시카고학파의 태두인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 1933*)이다. 그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완전경쟁시장 이론이 가정하는 것과 같이, 불확실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책임 있는 경영이나 생산 활동의 지배에 대한 역할(즉 기업가의 역할)이 존재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실 경제와 같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이트(*Knight, 1933: 16*)는 “확신에 차고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의심 많고 소심한 사람들에게 특정 소득을 보증함으로써 위험을 떠맡고 후자를 통제하는 시스템, 즉

기업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이트는 두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불확실하지만 통계적으로 확률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을 나이트는 위험(risk)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것은 경험적 확률을 기초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고의 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은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없앨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불확실성으로 확률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 즉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어서 확률분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완전한 무지 상태의 불확실성이 진정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그런데 기업활동이 바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을 한다는 것은 그 실패 확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사업마다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각 사업의 성공 확률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과 같은 장치로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가이며 이것이 이윤의 원천이라고 나이트는 보았다. 기업가가 기업설립이라는 자가 보험(self insurance)을 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평가가 정확한지 여부를 실험하게 된다(Demsetz, 1988: 141-62).¹⁰⁾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분배이론에 의하면 각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의 과실을 분배하는 방법은 각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지불하는 것이다. 각 생산요소의 공헌도를 알 수 있다는 확실성이 가정 하에서는, 누구도 공헌도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지불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불확실성 하에서는 각자가 생산에 공헌한 정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직무태만이 나타난다. 이를 효율적으로

10) 템세츠는 이것을 상업 실험(commercial experiment)이라고 부르고 있다.

방지하지 않으면 분업에 의한 생산은 비효율적이 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생산요소 공급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책임과 통제권한을 갖는 기업가가 등장한다. 즉 기업가의 역할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과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이트는 기업이나 임금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이트의 논점은 행동의 성과를 감독하지 않고서 일정한 임금을 보증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주는 대가로 다른 사람의 활동을 감독하는 특별한 계층이 기업가라고 보았다.

나이트의 이론은 기업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 템세츠(Demsetz)나 알치안(Alchian) 등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2) 코즈의 기업의 본질에 대한 견해

이러한 나이트의 견해에 대해서 코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했다. 첫째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계조직을 갖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 기업의 설립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기 계약 등의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기업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둘째는 기업가가 피고용자들에게 임금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보증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통제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떤 경우에는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증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을 소득보장을 통한 통제권의 확립이라고 보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코즈(Ronald Coase)는 후에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코즈는 이 거래비용 이론의 출발점을 바로 기업이론에서 발전시켰다. 코즈

(Coase, 1937: 13-16)는 1937년에 쓴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Firms)”에서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졌다. 이 논문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후에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선구자적인 견해를 보였음이 밝혀져, 54년이 지난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정부와 같은 사람의 손(visible hands)에 의해서 자원배분조정(coordination)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가격기능(invisible hands)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안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체 즉 보이는 손이 자원 배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코즈는 어떤 경우에는 가격 기구(price mechanism)에 의해서 자원배분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업가(entrepreneur)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즉 왜 하나의 통합하는 힘(기업가)이 다른 통합하는 힘(가격 메커니즘)을 대체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야 진정으로 기업의 존재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 논문에서 기업을 시장과 대비시키며, “왜 기업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왜 시장을 통해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즉 기업외부(즉 시장)에서는 가격변동이 생산을 지시하고, 생산은 시장에서 일련의 교환거래를 통해 상호 조정된다. 그런데 기업내부에서는 시장거래는 사라지고 조정자로서 기업가가 생산을 지시한다. 즉 기업가는 생산을 조정하는 하나의 대체방법이라는 인식을 최초로 했다. 이렇게 그는 자원배분에서 기업과 시장을 경쟁관계에 있는 제도로 파악하였다. 즉 기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격 메커니즘의 대체(substitutes)라고 인식하였다.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시장은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즉 조정이 일어나는 곳인 반면에 기업에서는 기업가와 계층

조직을 통한 자원배분(조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가격기구에 의한 조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 계층조직에 의해 조정하는가? 즉 어떤 경우에 시장에서 구입(out-sourcing)하고, 어떤 경우에 자체 생산(자기 직원으로)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기업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분업화로 전문화된 자본주의 교환경제에서 기업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코즈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용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가격기구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찾고, 계약자와 협상을 하고, 계약을 수립하고, 계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데에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 내부의 위계질서를 통한 명령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시장가격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고 모든 정보가 완전하다고 하는 신고전파에 가정 하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래의 모든 상황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대비하는 완벽한 계약(complete contract)이 체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적 행위는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벽한 계약을 작성하려면 엄청난 거래비용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에서는 고정된 위계질서(hierarchy)를 가진 항구적인 집단(즉 기업)을 만들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즈는 계약의 수립과 집행에 드는 이러한 비용들은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비용”(costs of using the price mechanism), 혹은 “판매비용(marketing

cost)"이라 불렀는데, 이 개념은 그의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사회적 비용의 제 문제(The Problems of Social Costs)"에서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이라 불렀다(Coase, 1960).

(3) Williamson에 의한 거래비용 이론 발전

코즈의 기업에 대한 거래비용적 분석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윌리엄슨(Williamson, 1975, 1981, 1985, 1988)이나 노스(D. North, 1990) 등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윌리엄슨은 현대 조직 행태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론을 발전시킨 사이몬(Hall A. Simon, 1976)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과 자신이 개발한 특수자산(specific asset) 개념을 반영시켜 거래비용이론을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¹¹⁾

그는 자산의 형태나 계약의 형태에 따라 거래가 달라지고 기업의 형태도 달라짐을 설명했다. 그는 거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계약에 임하는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는 계약에 임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boundedly rational)이고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이라고 전제한다.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뜻은 거래에서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계약에는 협상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래에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약속을 어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 즉 자리심(自利心, self-interest)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정보를 정직하게 제시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이익

11) 여기서 특수자산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써, 특수성(specificity)이란 어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것은 특정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남에게 주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이익의 추구와는 차이가 있다(자유주의연구회, 1994: 394).

이러한 인간관을 기초로 윌리엄슨은, 어떠한 경제행위가 ① 순수한 시장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② 기업내부의 위계질서적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③ 제3의 가능성으로서 계약자간의 장기적 상호협동을 수반하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 (예를 들면 하청관계)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는 그 거래 대상 자산의 특수성(specificity)의 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였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다른 자동차에는 맞지 않는 어떤 특수한 부품(즉 특수자산)을 하청을 통해서 공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체 생산라인에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품을 공급받는 자동차 회사와 같은 조립 가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부품은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생산할 수 없으므로 하청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될 경우 후에 하청회사가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대책이 없으므로 하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생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청을 통해서 부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생산라인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을 기업내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이렇게 자원배분의 조정을 위해서 시장을 활용할 것인가 기업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자산의 특수성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거래비용 이외에도 자산의 특징이 기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¹²⁾

12) 윌리엄슨은 이 경우에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자체 생산하는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일본과 같이 하청회사와 장기 계약 관계를 맺어서 하청회사의 기술을 제공하는 등 그 생산에 필요

(4) 팀세츠의 전문화론

앞에서 설명한 나이트의 불확실성 이론은 팀세츠와 알치안에 의해서 발전되었다(*Alchian, and Demsetz, 1972: 777-95*). 팀세츠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기회주의로 설명하고, 기업이라는 조직이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리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태만(*shirking*) 및 기회주의(*opportunism*) 등 때문에 거래비용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기업 내부의 조직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팀세츠와 알치안은 기업의 본질을 팀 생산으로 파악했다. 기업의 이윤은 생산에 참여한 여러 요소에 분배되는데 기업은 일종의 팀 생산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는 시장 조직과 같이 그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결합생산의 유인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결합생산에서 발생한 과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만일 투입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답은 간단하다. 즉 각 사람에게 자신이 투입한 요소의 비용만큼 지불해주면 된다. 그리고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다면 구입하는 만큼 대가를 치르면 되므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면 각자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각자의 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는 기업 내부에서는 무임 승차자 문제, 태만이나 기회주의가 쉽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태만비용(*shirking cost*)을 지불하고도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중앙 집중적인 생산 즉 기업이 개별적인 생산 즉 시장에서 구입하

한 특수자산의 소유자를 보호할 장치(*safeguard*)로써 원활한 하청관계 수립에 힘을 쏟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부품을 공급하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높을수록 수직적 통합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특수성이 높은 자산도 하청관계를 통해서 부품을 조달받겠다는 차이가 있다.

는 것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그는 기업의 존재 이유,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 내에 팀 생산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자원제공자의 생산기여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각 생산요소 제공자의 생산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데 특화하는 것은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가 모니터링에 기여해야 함에도 이들이 직무 태만을 할 경우 누가 관리자를 모니터링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관리자에게 다른 생산요소의 제공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residual*)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템세츠, 1972: 124). 그래야만 관리자의 근무태만을 막을 수 있다(자유주의연구회, 1994: 365-98). 이렇게 알치안과 템세츠는 잔여재산청구권을 감독자가 차지하고 그가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보았다(유동운, 1999: 228).

템세츠(1991)는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여 자신의 이론과 코즈 및 나이트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보통 기업 내의 자원 관리 비용과 시장간의 자원 관리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거래비용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템세츠는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기보다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관리비용(*management cost*)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비용은 시장들 사이의 자원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관리비용은 기업 내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다. 전자의 개념은 코즈와 상당히 관련되어있는 반면 후자는 나이트와 관련되어 있다. 나이트가 기업가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확실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통제권을 부여 받는 것으로 기업을 이해함으로써, 주로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 내부의 관리문제를 제기했다면, 코즈는 기업 내의 비용만이 아니라 기업 외부의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템세츠의 정보비용 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트의 기업 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에서 기업의 존재 의미

이상에서 요약한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에 의하면 기업이란 불확실성이나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기업이론은 주류경제학의 인간관을 대폭 수정하였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또한 주어진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완벽한 인간을 상정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완벽한 도덕적 인간을 상정한다. 그러나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결코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가정한다. 인간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 수도 있다는 기회주의적이며, 합리적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이라고 전제한다.

이렇게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상정을 하면 기업 조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근로자들은 최선을 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고, 따라서 거기에겐 감독비용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소요된다.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고용해도 경영인이 주인인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대리인들이 주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인간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된다(Fukuyama, 1995).

이렇게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기업의 성패가 단지 투입산출에 달려있지 않고, 기업 내부의 조직을 일

마나 잘 관리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조직 관리를 통해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위험 부담을 지게 될 기업가의 역할이 발생한다. 바로 이것이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존재 의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투입량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창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¹³⁾

V. 성경적 기업관

지금까지 기업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경제학파의 견해를 정리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적 기업관은 무엇이며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기업관과 어떠한 연관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에 비해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대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 의식과 이웃 사랑의 헌신을 이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하며 경쟁을 당연시 하는 자본주의를 속물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13) 경제사회 현상을 물리학적 방법처럼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던 주류경제학의 풍토에 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라든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점,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추세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다.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했다(Stodhouse, et al. 1996). 스택하우스(Stodhouse, 1987)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사회 제도인 교회에서 기업의 시사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앙이 이러한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리하여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적 관계로 이해되는 기업이해는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또한 반기업적 정서 역시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의 도덕성을 소명의식, 하나님의 도덕법, 자유, 죄, 언약 등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기업관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을 계약적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언약적 관계로 이해한다. 즉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자본가가 고정급을 주고 노동자의 노동을 사고, 그 대가로 노동자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계약을 암묵적으로 세운 것이라는 기업이해를 신학자들은 수용하지 않는다. 기업을 인간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존재하는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에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기 밑의 피고용자를 명령할 권한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피고용자 역시 기업이나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을 감당할 장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생산을 하는 것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물건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섬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기업관은 그동안 타락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이상적인 것으로 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존속할 수 없을 것으로 치부되어 비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인사관리분야의 연구나,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을 넘어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마케팅 분야의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기업관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Morgan and Hunt, 1994).

VI. 결론

이 글에서는 경제학의 기업이론을 개관하였다. 먼저 주류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이론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원배분과 시장의 효율성에 관심을 가진 주류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기업 외부의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원칙을 규명하는데는 좋은 모형이지만, 기업 내부에서 관리, 경영 등은 다룰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다. 그런 후 새로 대두되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기업이론을 설명했다. 여기서는 주로 나이트의 전통을 이어받는 불확실성 이론과 코즈의 거래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학의 새로운 조류들

이 경제학의 어떠한 가정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을 연구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성경적 기업관을 간단히 소개한 후 성경적 기업관의 현실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경제학 분야에서 있었던 기업의 존재 의의에 대한 각 학파의 이론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성경적 기업관과 비교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은 이론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가 사회과학의 중요한 학문분야마다 독보적인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그의 이론은 세계 많은 학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이론이 잘못된 인간관에 기초하여 오늘날 현실 사회주의가 역사적 실험 이후에 실패로 판정되었다(김승욱, 1992).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정, 즉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의 기업이론도 역시 기업의 행동 원리의 극히 한 부분만을 설명할 뿐, 기업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현대 경제학의 발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경제학에서 기업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이론은 보다 현실적인 인간이해를 기초로 발전하고 있다. 인간이 완전히 도덕적이며 합리적이라고 하는 가정을 버리고,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기회주의적이라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전제에 입각하여 발전되고 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해는 거래비용이론을 발전시켰고, 이것은 대리인 문제나 신뢰 상실의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적되었으며(Fukuyama, 1995), 기업을 팀워크로 인식하게 되었다(Alchian, and Demsetz, 1972). 이러한 현실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이 타락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성경적 인간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제학계에서도 학문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차 성경적 인간관과 가깝게 변화되

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보편성을 증명해 준다.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업이해의 발전은 성경이 강조하는 윤리, 즉 정직, 상호신뢰, 성실, 사랑, 봉사, 헌신 등의 가치관이 기업의 효율성과 배치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케팅이나 인사관리에서 최근에 중요하게 여기는 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섬김과 일치하듯이, 경제학에서도 신뢰, 성실 등이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기업을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결론은 성경적 기업관과 일치한다. 즉 기업을 언약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계약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성경적 기업관이 효율성의 기준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의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단지 도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할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도 기업이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만물이 회복된 후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고을을 다스릴 것이라든지, 상급이 서로 다르다는 암시를 보면, 천국에서도 조직이라는 의미의 다스림은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조직, 즉 기업과 유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국에는 풍부한 곳이므로 회소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최선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효율성은 존재할 것이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기업도 만물을 회복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섬김의 원리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열 (1990), 『기독교 경제학』, 무실.
- 김승욱 (1992), "A. Smith, K. Marx, 및 J. Calvin의 인간관 비교 : 인간관, 모순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성』, 기독교학문연구소 4(1)(통권 10호).
- _____ (2001), "경제학 분야에서 기독교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과 학문』, 6(2), 73-106.
- 김영봉 (1993), 『경제체제론』, 전정관, 박영사.
- 김종현 (1988), 『경제사』, 경문사.
- 엄요섭 편 (1989), 『하나님 나라와 노사문제』, 종로서적.
- 유동운 (1999),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 이근 (2002), "제도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분석," 『제도연구 4』, 한국 경제연구원
- 이만기 (1992), 『기독교와 경제 윤리』, 일신사.
- 자유주의연구회 (1994),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 장하준 (1996), "제도경제학의 최근 동향," 『경제학연구』 44(1).
- 전강수·한동근 (1999), 『토지를 중심으로 본 성경적 경제학』, CUP.
- 황호찬 (1996), 『돈, 그 끝없는 유혹』, IVP.
- 황호찬 (2001), 『돈, 그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태학사.
- Alchian, A. and H. Demsetz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 Brock, Gerald W. (2002),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Faith and Economics*, no. 39, 1-13.
- Chewing, Richard C. ed. (1990),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Series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1993), 『기업경영과 성경적 원리』 IVP.

- Coase, Ronald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ew Series, IV (13-16).
- _____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Oct. 1960), 1-43
- _____ (1988),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일태·이상호 역(1988), 「기업, 시장 그리고 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 Demsetz, H (1988), "The Theory of the Firm Revisited,"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rganization, Vol. 4, 141-162, reprinted in Oliver E. Williamson and S. G. Wintered (eds.)(1991), *the Nature of the Firm :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Ellul, Jacques (1950), *L'homme et l'argent*, 양명수 역 (1991), 「하나님이나 돈이냐」, 대장간.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Gallbraith, John Kenneth (1977), *The Age of Uncertainty*, 김영선 역(1978), 청조사.
- Hay, Donald A (1989), *Economics Today*, 전강수 외 역 (1995),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IVP.
- Heilbroner, Robert L. (1993),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 9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 Knight, Frank H (1933), *Risk, Uncertainty and Profit, Preface to the Re-issue*, London : London School of Economics Series of Reprint, no. 16.
- Marx, Karl (1867), *Das Kapital*, 김수행 역 (1989), 「자본론」, 비봉출판사.
- Morgan, Robert M and Shelby D. Hunt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July 1994.
- Nash, Ronald H (1986), *Poverty and Wealth: The Christian Debate over Capitalism*, 이상용 역 (1991), 「기독교와 자본주의」, 한뜻으로.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이병기 역 (1996),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자유기업센터.
- Preston, Ronald (1991), *Religion and the Ambiguities of Capitalism*, Cleveland:

The Pilgrims' Press.

- Simon, Hall. A. (1976), *Administrative Behavior*, 3rd ed, London : Macmillan.
- Sirico, Robert A. (2000), "The Entrepreneurial Vocation," *Journal of Market & Morality*, vol. 3 no. 1, 1-21.
- Smith, Adam (1759), *Theory of Moral Sentiment*, 박세일·민병균 공역(1996),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 _____ (1776), *The Wealth of Nations: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김스행 역 (1992), 동아출판사.
- Stackhouse, Max (1987), "Spirituality and the Corporation," in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Grand Rapids: Eerdmans, chap. 7, 113-36.
- Stackhouse, Max L., Dennis P. McCann, Shirley J. Roels and Preston N. Williams ed. (1987),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Grand Rapids: Eerdmans.
- Williamson, Oliver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 New York : Free Press.
- _____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7, No. 3, 548-77.
- _____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 Free Press.
- _____ (1988), "Corporate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e*, Vol. 43, 567-91.

ABSTRACT

**The Changes of the Views on Enterprise in Economics
and the Biblical View on Enterprise.**

Seung-Wook Kim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of firm in economics for evaluation of the necessity of enterprise under the Christian worldview. It summarized the perspectives on enterprise of mainstream economics, of Marxist economics and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t is also summarized the theological view on company. Here it is found that there are fundamental weakness in the theory developed under the non-Biblical worldview, and that there are no conflict between the pursuits of efficiency and the christian ethics, such as honesty, trust, sincerity, love, devotion and service. The founding of this paper can be the foundation of the assertion that the purpose of an enterprise is not the profit seeking but the service and that a corporation is not a contract community but a covenant community. It is concluded that at the working place, we should taste the principle of service which we can enjoy in the heaven after He recovered everything.

Key words: enterprise, view on corporation, significance of company, New Institutional Economics, christian view on firm